

<2016년 5월 22일 주일말씀>

성분 인생이다

본 문 잠언 13장 13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도 시대 말씀을 통해 모두 교육해 주겠습니다.
사람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대하라는 교육의 말씀입니다.

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,
<자기 자신>에 대해서도 잘 알고 대하고,
<사람들>도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 대하기 바랍니다.

◎ 말씀의 주제는 ‘**성분 인생이다.**’ 입니다.

주제에 따라 <성분>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,
이어서 <족속>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겠습니다.

어떤 말씀인지, 지금부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성령님은 사람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
“사람마다 ‘성분’ 이 있다.

그러니 ‘성분’ , 곧 ‘질’ 을 파악하고 대해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성분>이란, 다른 말로 하면 ‘성질’ 입니다.

곧 ‘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’ 이라는 말입니다.

- ◆ 만물들도 <성분> 때문에 ‘가치’ 가 좌우됩니다.

- ◆ <바닷물>은 ‘소금 성분’ 이 있어서
바닷물을 모아서 가공하면 ‘소금’ 이 됩니다.

<강물>은 ‘성분’ 이 그렇지 않으니, 가공해도 ‘소금’ 이 안 됩니다.

- ◆ <약초들>은 ‘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성분’ 이 있어서
그것을 캐다 먹으면 병을 낫게 합니다.

<일반 풀들>은 ‘성분’ 이 그렇지 않으니,
캐다 먹어도 병에 효과가 없습니다.

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
‘가치’ 와 ‘값’ 이 좌우됩니다.

<사진1>

- ◆ 자연에서 자라는 <산삼>은 한 뿌리만 먹어도
농사해서 재배하는 <인삼>에 비해 효능이 100배 이상입니다.

아예 ‘성분과 질’ 이 다릅니다.

인삼 천 뿌리를 다 합쳐도
산삼 한 뿌리의 성분이 안 나옵니다.

<사진2>

- ◆ 청정 지역 뉴질랜드에서 자생하는
‘마누카’ 라는 야생 관목의 꽃에서 채집되는 꿀이 있습니다.

바로 <마누카 꿀>입니다.

이 꿀은 건조한 피부 보습 효과, 손상된 피부 진정,
면역력 강화, 피로 해소, 항생 및 항균 작용 등
<일반 꿀>의 100배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이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,
미국 식약청에서도 효능을 인정받은 우수한 ‘약용 꿀’ 입니다.

그만큼 ‘성분과 질’ 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

<사진3>

- ◆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고 있는 <황금독화살개구리>는
<독을 가진 일반 개구리>보다 수백 배 이상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.

한 마리당 10~20명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
무시무시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1위입니다.

그만큼 ‘성분’ 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

<사진3>

- ◆ 월명동 잔디밭 뒤에 있는 산 너머에 <초오>라는 식물이 있습니다.
이 식물은 먹으면 죽습니다.

옛날에 왕족이나 계급이 높은 신하가 죄를 범했을 때,
임금이 ‘사약’ 을 내려 죽이는데,
이 <초오>라는 식물이 ‘사약의 재료’ 로 쓰였습니다.

이 식물은 일반 풀보다 100배 이상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.

<사진4>

- ◆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도 <복어 알(난소)>은 ‘독약’ 입니다.
먹으면 죽습니다. ‘성분’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알을 빼고 <복어>만 먹으면 ‘영양가’ 가 매우 높습니다.

성인병 예방, 간 해독 작용, 혈액을 맑게 해 주는 효능이 있고,
기운을 회복하는 데도 좋습니다. ‘성분’ 때문입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성분과 질>이 참으로 큼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<사람>도 ‘성분’ 에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.

여자는 X염색체만 가지고 있고

남자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,

여자의 X염색체와 남자의 Y염색체가 결합되면 ‘남성’ 이 되고,

여자의 X염색체와 남자의 X염색체가 결합되면 ‘여성’ 이 됩니다.

<성분>대로 ‘성별’ 이 결정됩니다. <끝>

- ◆ 사람에게도 <성분>이 있습니다.

이 <성분>은 마음과 생각의 질, 성품과 사고의 질에서 좌우됩니다.

그리고 <마음과 생각이라는 성분과 질>에 따라서

인생 운명이 좌우됩니다.

왜냐하면 사람은

뇌에서 ‘생각한 것’ 을 ‘몸’ 으로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사람은 <마음과 생각의 성분과 질>이 그리도 중합니다.

- ◆ 모두 겪어 봐서 알 것입니다.

똑같은 일을 놓고도 <성분, 성질>에 따라서

어떤 사람은 ‘독약’ 같이 ‘악’ 으로 대하고,

어떤 사람은 ‘약초’ 같이 ‘선’ 으로 대합니다.

<마음과 생각의 성분, 성질, 성품, 사고>에 따라서

극적인 약 같은 효력을 내는 자로 쓰여지기도 하고,

극적인 독약 같은 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.

- ◆ <식물>도 ‘성분’ 을 잘 파악하고 먹어야

몸에 문제가 안 생기고 효과를 보듯이,

<사람>도 ‘성질, 생각의 질, 성분’ 을

잘 파악한 후에 대하고 써야지

문제가 안 생기고 하는 일이 잘됩니다.

그냥 ‘다 좋다.’ 생각하고 쓰면,
마치 ‘독약을 먹는 것’ 과 같아서 해를 당하게 됩니다.

그렇다고 ‘다 나쁘다.’ 생각하고 멀리하기만 하면,
마치 ‘약초’ 나 ‘좋은 음식’ 을 멀리하는 격이 되어
약해져서 병을 얻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.

◆ 이에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사람들은 각자 ‘개성체’ 다.

고로 사람마다 ‘성분’ 이 다 다르다.

고로 100% <성분과 질>을 잘 파악하고 대해라.” 하셨습니다.

◆ 섭리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

산삼 같은 자도 있고, 인삼 같은 자도 있고,
독초 같은 자도 있고, 약초 같은 자도 있습니다.

마누카 꿀 같은 자도 있고, 한국 토종꿀 같은 자도 있고,
일반 양봉 꿀 같은 자도 있고,
설탕으로 만든 가짜 꿀 같은 자도 있습니다.

또 복어 같은 자도 있습니다.

이런 자들은 ‘독이 들어 있는 알 같은 것’ 을 버리고
대하고 써야 됩니다.

이와 같이 각 사람마다 ‘성분과 질’ 이 다르니,
파악하고 알고 대하고, 알고 전도하고, 알고 관리하고,
알고 일을 맡겨야 잘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지금까지 말씀했듯이 <성분>이 참으로 귀하고 중합니다.
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

계속해서 <성분>에 대해 말씀하면서,
<성분만큼 중요한 것>이 무엇인지 말씀할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벌들은 ‘꽃꿀’을 물어다가 ‘꿀’을 만듭니다.

벌들이 빈 벌집에 ‘꽃꿀’을 저장하면
어린 벌들이 그 꽃꿀을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면서
입 안의 ‘침’과 섞이도록 되새김질을 합니다.

그러면 ‘꽃꿀’이 발효되어 ‘꿀’이 되고,
이때 벌들이 날갯짓을 해서 꿀의 수분을 증발시켜
‘적당한 농도’로 만듭니다. <꿀>

- ◆ <꽃꿀>은 그리 달지 않은데,
성분이 ‘꿀을 만드는 성분’이라서 이렇게 ‘꿀’이 됩니다.

<사탕수수>는 ‘꽃꿀’보다 훨씬 진하고 단데도
그것으로는 ‘꿀’을 못 만듭니다. 왜요?

<성분> 때문입니다.

첫째 ‘꽃꿀의 성분’과
둘째 ‘벌의 성분과 질’로 인해 ‘꿀’이 만들어집니다.

<성분>이 이리도 크고 귀합니다.

- ◆ <꽃꿀 성분>으로 ‘꿀’ 이 만들어지듯,
사람도 <성분>에 따라 ‘삶’ 이 좌우됩니다.

- ◆ 하나님이 택한 귀한 자는 <성분과 질>이 다릅니다.
곧 ‘생각의 질, 성품, 성격’ 이 다릅니다.

<사탕수수>는 달아도 ‘성분’ 때문에 꿀을 못 만들지만,
<꽃꿀>은 덜 달아도 ‘성분’ 때문에 꿀을 만든다고 했지요?

이와 같이 ‘꽃꿀 같은 성분을 가진 자’ 는 남들과 달라서
하나님이 그 ‘성분’ 을 보시고,
이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귀하게 쓰십니다.

그 사람만을 하나님이 시대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게 쓰십니다.

- ◆ 그러나 <성분>을 가진 자라도 꼭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.

<벌>이 ‘꽃꿀’ 을 물어다 저장하여 <꿀>을 만들듯
<자기>가 ‘시대 말씀’ 을 듣고 <삼위일체와 주>와 함께
<자기>를 만들어야 됩니다.

- ◆ 목숨 다해 자기를 만들면,
자기가 가진 ‘성분과 질’ 로 인해 ‘변화’ 를 일으킵니다.

- ◆ <꽃꿀>을 가지고도 <꿀>을 만들지 않으면
<성분>만 가졌지 <꿀>이 되지 않듯이,
자기를 만들지 않으면
<성분>만 가졌지 <꿀 같은 인생>이 되지 않습니다.

- ◆ <성분>도 중요하고,
그것을 가지고 <자기를 만드는 것>도 중요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꽃>은 ‘꽃꿀’ 밖에 못 만듭니다.
결국 <벌>이 ‘꽃꿀’ 을 물어다 ‘꿀’ 을 만듭니다.

이와 같이 <자기 스스로>는 자기를
‘하늘 신부’ 로, ‘휴거의 영’ 으로,
‘하늘이 귀히 쓰는 자’ 로 만들지 못합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가 ‘시대 구원자’ 와 함께
‘시대 말씀’ 을 가지고 인간의 육과 영을 만드십니다.

<꽃과 벌>이 ‘꽃꿀’ 을 가지고 <꿀>을 만들듯,
<자기와 삼위일체와 주>와 함께 ‘시대 말씀’ 을 가지고
<자기>를 만드는 것입니다.

- ◆ <꽃꿀>을 채취해서 그냥 먹는 것과
<꿀>로 만들어서 먹고 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.

<사탕수수>를 꺾어서 그냥 먹는 것과
<설탕>으로 만들어서 먹고 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.

이와 같이 <인생>도 그냥 사는 것과,
만들어서 하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.

- ◆ 이와 같이 ‘가공’ 하면 ‘창조’ 됩니다.
자기도 삼위와 주와 함께 만들면, ‘재창조’ 됩니다.

- ◆ 사람은 ‘누가 만들었느냐’에 따라서 좌우됩니다.

결국 ‘만든 자’가 쓰게 됩니다.

〈삼위일체〉가 만들었으면 ‘삼위’가 쓰시고,
〈주〉가 삼위와 함께 만들었으면 ‘삼위와 주’가 쓰고,
〈제자〉가 만들었으면 ‘제자’가 쓰고,
〈세상〉이 만들었으면 ‘세상’이 씁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이 시대 섭리역사 하나님의 말씀>은 기성의 말씀과는 다릅니다.

마누카 꿀과 같고, 한국 토종꿀과 같고, 산삼과 같습니다.

고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, 그 효능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.

<성분> 때문입니다.

- ◆ <섭리사 말씀>은 ‘별이 꽃꿀을 물어다 만든 꿀’과 같고,
<기성 말씀>은 ‘사탕수수로 만든 설탕’과 같습니다.

고로 <섭리사 말씀>은

아예 ‘성분’이 다르고, 그에 따른 ‘효능’도 달라서

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

<이 시대 하나님의 정한 뜻>을 이루게 됩니다!

- ◆ 하나님은 ‘이 시대 구원자’를 세우시고,
그를 통해 반드시! ‘구시대와는 다른 말씀’을 주십니다.

이 시대에는 ‘하늘 신부’로 변화시켜야 하니,

시대 구원자를 통해 ‘신부 성분의 말씀’을 주십니다.

- ◆ <종>에게는 ‘주인의 시중을 드는 말’ 을 해 주어
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게 합니다.

<자녀>에게는 ‘자녀 교육’ 을 해 줍니다.

<사랑하는 자>에게는 ‘사랑 교육’ 을 해 주어
그를 통해 ‘사랑의 목적’ 을 실행합니다.

<사탕수수>를 가지고는 그 ‘성분’ 에 따라서 <설탕>을 만들고,
<꽃꿀>을 가지고는 그 ‘성분’ 에 따라서 <꿀>을 만들듯,
종, 자녀, 신부는 각각 ‘성분과 질’ 이 다르니,
그에 따라 ‘해 주는 말과 교육’ 도 다릅니다.

하나님은 ‘성분과 질’ 대로 말씀하며 가르치시고 만드십니다.

- ◆ 저마다 ‘성분’ 이 다릅니다.

곧 ‘마음과 생각의 질, 성품, 성질’ 이 다릅니다.

고로 <성분>을 파악하여 전도도 하고, 관리도 해야 됩니다.

섭리인들을 대할 때도 <성분과 질>을 알고 대하고,
안 좋은 것은 ‘자기’ 도 고치고,
관리하고 가르치는 ‘지도자’ 도 관리하면서 고쳐 줘야 됩니다.

그래야 수고한 만큼 잘됩니다.

- ◆ 또 <성분과 질>에 맞게 사명도 주고 일도 맡겨야 됩니다.
그래야 10배, 20배, 100배 잘하게 됩니다.

<성분과 질>대로 일을 안 맡기면
일을 맡긴 자도 걱정하며 속이 썩고,

일을 맡아서 하는 자도 힘이 듭니다.

- ◆ <성분과 성격>은 첫째 - 타고나기도 하고,
둘째 - 본인이 살면서 행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

<아벨 성분>이 있어야 ‘아벨’로 만들어지고,
<가인 성분>을 가지고 있으면 ‘가인’으로 만들어집니다.

악령자들은 ‘악의 성분’으로 자기를 악하게 만듭니다.

<신부 성분>이 있어야 ‘신부’로 만들어집니다.
<성분>이 이같이 중합니다.

- ◆ <귀한 역사>를 만나고 <하늘이 보낸 귀인>을 만나
<귀한 성분의 신부 말씀>을 듣고 <귀하디귀한 신부>가 됐으니,
더욱 <자기 성분>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.

그러면 더욱 빨리 ‘휴거의 차원’을 높이고 완성하게 됩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<성분>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하고,
<족속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<성분과 질>은 ‘겉’만 보고는 모릅니다.

<옷의 질>도 ‘겉’만 보고는 부드러운지 거친지 모릅니다.
그래서 만져 보고 질을 파악한 후에 삽니다.

이와 같이 사람도 ‘속의 성분과 질’을 파악해야 됩니다.

- ◆ <토질>도 ‘흙’ 만 보고서는 모릅니다.
성분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. 사람도 그러합니다.

- ◆ <만물의 존재물들>은 모두 ‘특성과 질’ 이 있습니다.
그것은 ‘겉모습’ 과는 상관없습니다. 사람도 그러합니다.

- ◆ <성분과 질>은 예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.
사람도 그러합니다.

겉모습의 멋과 아름다움과 모양과 형상은
그 사람의 <성분과 질>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

고로 ‘겉모습’ 보다
오직 ‘성분과 성품과 성질’ 을 파악해야 되고,
특히 ‘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’ 을 파악해야 됩니다.

- ◆ 과일도 ‘껍질’ 과 ‘그 안의 성분과 질’ 은 다릅니다.
어떤 과일은 <껍질>은 달콤하고 향긋한데, <맛>은 시고 떼웁니다.
어떤 과일은 <겉>은 모양이 괴상한데, <맛>은 향긋하고 달콤합니다.

사람도 그러합니다.
<겉모습>과 <속의 성품과 질>은 다릅니다.
꼭 이것을 알고 파악하고 대해야 됩니다.

- ◆ 똑같은 오렌지라도, 생긴 모양과 색깔이 같아도
어떤 것은 달고 향긋하고 맛이 있는데,
어떤 것은 아무 맛도 없고 쓰기만 합니다.

그러니 결국 못 먹고 버리게 됩니다.

사람도 그러합니다.

<겉모습>은 똑같이 예쁘고 멋있는데, <성품과 질>이 다릅니다.

- ◆ 모든 과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

바로! 익어야 ‘제 성분’ 이 나와서 맛있다는 것입니다.

이와 같이 사람도 크고 성장하고 만들어야

‘제값’ 을 하고 ‘빛’ 이 납니다.

- ◆ 그러니 ‘아직 크지 않은 어린 자들’ 을 보고,

“성질이 안 좋다. 성품이 안 좋다.

어린 것이 못됐다. 질이 안 좋다.” 하지 말아요.

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, <성품>이 제대로 나타나겠습니까?

이는 마치 ‘아직 다 만들지 않은 음식’ 을 먹고

“이게 음식이냐? 정말 맛없다.” 하는 것과 같습니다.

음식도 다 만들어야 제맛이 나듯,

과일도 다 익어야 제맛이 나듯,

사람도 크고 성장하고 만들어야

‘성품과 성분과 질’ 이 제맛을 내고 빛이 납니다.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따 먹고

- 과일이 질이 안 좋네. 나무가 질이 안 좋네. - 하며,

그 과일나무를 베 버리는

어리석고 무지한 농부같이 되지 말아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과일이나, 식물이나, 동물이나, 사람이나

아직 안 컸을 때 ‘성분과 질’ 을 파악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.

다 커서 <성분>이 ‘제 역할’ 을 할 때 파악해야
그 효능도, 능력도, 재능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- ◆ 집도 ‘아직 건축 중’ 인데
지나가는 자들이 “저 집 별로네.” 하고 평가하면,
잘못된 판단입니다.

다 완성하고 나서 보니, 지나가는 자들마다
“저런 집에 누가 살지? 엄청나다. 부럽다.” 하게 됩니다.

- ◆ 성장해야 갖춰집니다.
 - 고로 ‘모양과 형상’ 이 아름답고 신비합니다.
 - 또한 ‘성분과 질’ 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성장 중이라서 아직 ‘성분과 질’ 이 생기지도 않았는데
“질이 나쁘다. 품종이 안 좋은 나무다.” 하면, 실수이며 모순입니다.

고로, 그로 인해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, 자기만 손해입니다.

- ◆ <자연성전>도 ‘만드는 중’ 에는
보는 사람들마다 각종으로 평가했습니다.

“환경의 질이 안 좋다. 별것도 아니다.
세상에 이렇게 좁은 골짜기가 어디 있냐. 답답하다.
여기까지 뿔 보러 오냐.
돌도 무너지고 형편도 없다.” 하며 실망했습니다.

그러나 개발하고 다 만들어 놓고 변화시켜 놓으니,
‘세상에 이렇게 귀한 곳은 없다.’ 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

최고의 환경, 최고의 자연성전이 되었습니다.

◆ 사람도 그러합니다.

아직 ‘배우는 과정’ 이고 ‘크는 과정’ 인데,
‘다 배운 자, 다 큰 자’ 같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.

그때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.

◆ 그러니 전도자와 관리자들과 지도자들은

섭리의 어린 생명들이

어릴 때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힘 빠지지 말아요.

어릴 때는 ‘성분과 질’ 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.

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키우기 바랍니다.

◆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여

자녀가 어릴 때부터 온갖 걱정을 하며

“너는 커서 뭘 하겠니. 뭘 해 먹고 살래?” 걱정을 합니다.

◆ 선생이 어렸을 때도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,

앞으로 뭘 해 먹고 살 거냐고 온갖 걱정을 했습니다.

30대 초반까지 매일 땅이 꺼져라 걱정하며,

나를 쳐다보고 한숨을 쉬어 댔습니다.

아버지는 “땅 파고 농사지으면 먹고 산다.” 하셨고,

어머니는 “밭 잘 매면 먹고 산다.” 하셨습니다.

결국 선생은 ‘인생들의 마음 밭’ 을 파서,

그 마음 밖에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 씨앗’을 뿌리고,
잘 성장하도록 ‘잡초’를 뽑아 주는
<천명(天命)의 길을 가는 삶>을 살게 되었습니다.

- ◆ <육신>을 보면 희망이 없어 울고 짜지만,
<하늘 길>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한 뜻이 있으니
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산다면,
그 인생길은 태·양·갈·이 빛이 나게 됩니다!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자기 인생 희망 없다 하지 말고,
천 번, 만 번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를 부르면서
자기 재능과 특성대로
자기를 써 달라고 하며 간구하며 맡겨 보아라.

그리고 삼위를 사랑하고, 보낸 자와 일체 되어 살면서
자기를 잘 만들어 보아라.

20대, 30대, 40대 점점 크면서 ‘성분과 특성’이 나온다.
시간이 갈수록 너를 귀히 쓴다.
내 말은 거짓이 없다. 확실하다.”

<전환>

- ◎ 이제 <족속>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핵심만 이해시키면 되니, 짧게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두 번째로는 <족속>이 그리도 큼니다.

족속대로 ‘그 족속의 성분과 질’ 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

◆ <치타 족속>이면

자기도 ‘치타 성분과 질’ 을 가지고 태어나고,
그에 따른 ‘사고’ 를 갖고 ‘교육’ 을 받게 됩니다.

◆ <토끼 족속>이면

자기도 ‘토끼 성분과 질’ 을 가지고 태어나고,
그에 따른 ‘사고’ 를 갖고 ‘교육’ 을 받게 됩니다.

◆ 사람도 그러합니다.

<족속>으로 ‘성분과 질’ 이 좌우되고,
‘사고와 교육’ 이 좌우됩니다.

◆ <아브라함 족속>은 ‘믿음의 족속’ 입니다.

<이스마엘 족속>은 ‘종 족속, 가인에 속한 족속’ 입니다.

<예수님 족속>은 ‘진리와 사랑의 족속’ 입니다.

◆ 시간이 흐르면서,

하나님은 ‘그 족속들’ 을 더 좋게 변화시키십니다.

그러나 ‘그 차원에 속한 변화’ 입니다.

하나님은 구약 종 족속, 신약 자녀 족속, 성약 신부 족속
이렇게 ‘시대별’ 로 완전히 쪼개서 <족속>을 낳고 키우십니다.

◆ 세계 각 종교의 족속들을 보면,

<우상 족속>은 그 선조를 따라서

‘우상 신’ 을 최고의 신이라도 되는 듯 섬기고 모십니다.

이 밖에도 폭력 족속, 문신 족속, 사기 족속들도 모여 살고,
원주민들도 족속끼리 모여 삽니다.

민족마다 ‘족속별’ 로 모여 삽니다.

◆ <하나님의 구원역사>도

‘어느 족속’ 이냐에 따라서 ‘차원’ 이 다릅니다.

구약 족속이냐, 신약 족속이냐,
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성약 족속이냐에 따라
각각 ‘차원’ 이 다릅니다.

<땅>에서 ‘어떤 족속’ 에 속해서 ‘어떤 차원’ 으로
믿고 행했느냐에 따라서
<그 영들이 가는 천국의 세계>도 결정됩니다.

◆ <천국>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.

하나님은 <구약 - 신약 - 성약>을
각각 확실히 ‘차원’ 이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.

이에 따라 천국도
<구약 급 천국 - 신약 급 천국 - 황금성 천국>으로
확실히 ‘차원’ 이 다릅니다.

<구약>에서 구원받은 영들은
‘구약 급에 해당되는 천국’ 으로 가고,
<신약>에서 구원받은 영들은
‘신약 급에 해당되는 천국’ 으로 갑니다.

<성약역사>에 와서 ‘휴거된 영들’은
‘신부로 변화된 영들’만 거하는
‘황금성, 곧 신부성 천국’으로 갑니다.

- ◆ 땅에서도 그 육신들이 섞여서 같이 살지 못합니다.

하나님께서 ‘족속별, 시대별’로 <말씀>을 주시고,
또 ‘족속별, 시대별’로 <보내는 자>도 다르고,
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<행위의 대가>도 다르고,
<하나님이 대하시는 차원>도 다르고,
<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차원>도 다르니,
각 족속별로 그 급에 맞는 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.

- ◆ 마음도 행실도 서로 안 맞으면, 같이 못 삽니다.

<종>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행실이 맞으니
‘구약 족속’끼리 같이 살고,
<자녀>로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행실이 맞으니
‘신약 족속’끼리 같이 살고,
<신부>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이 맞으니
‘성약 족속’끼리 같이 살게 됩니다.

그에 따라 그 영들이 가는 <영의 세계>도 쪼개 놓으셨는데,
<성약 휴거된 족속들의 영>이 ‘황금성’에 가더라도
거기서 ‘각자의 행위’대로
또 천층만층으로 ‘차원’이 나뉘게 됩니다.

- ◆ <이 세상>도 ‘천층만층’이듯이,
<영의 세계>도 ‘천층만층’입니다.

이 세상에서 자기 욕이 행한 대로
그 영이 ‘그에 맞는 영의 세계’로 쪼개져서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성약 섭리역사 같은 주관권>에서 사는데도
성전을 사서 합봉을 하면,
각자 다른 교회에 있다가 합봉 했으니
서로 ‘체계’가 안 맞아서 애를 먹습니다.

<성약 주관권>에서 ‘똑같은 진리의 말씀’을 듣는데도 그러합니다.

그런데 서로 안 맞는 이유는
‘체계와 조직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
또 각 교회 교역자들이 ‘자기 스타일’로
교회를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.

오직 ‘주와 일체 시키는 데’에 중심을 두면,
합봉 하여 교회들이 섞여도 ‘하나’입니다.

- ◆ 섭리사도 이 정도인데,
기성은 ‘한 예수 안’에서 교회들이 각각입니다.

장로교, 감리교, 침례교, 성결교 등 ‘교파’도 많습니다.

그 안에서 또 교회들이 쪼개져서 ‘각각’입니다.

설교의 차원도 다 다릅니다.

- ◆ 이사야 11장 1절 이하를 보면,
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오면,

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와 독사가 모두 하나 되어
이상세계가 된다고 했습니다.

이 말씀은 ‘각 족속과 개인들’을 ‘동물’로 비유한 것으로
〈하나님이 보낸 구원자〉가 와서 그를 믿고 따르면,
모든 족속들이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.

- ◆ 섭리사 각 나라, 각 교회는 ‘같은 말씀’을 듣습니다.
고로 ‘똑같은 세계’로 가면서 행합니다.

세계 모든 족속들이 이 역사에 와서 배우고 행하면,
모두 ‘한 족속’이 됩니다.

그러면 그 〈육〉도 ‘삼위와 주의 신부’가 되어 살고,
그 〈영〉도 ‘신부’로 변화되어
‘최고 영광의 황금성’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.

- ◆ 섭리역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2명, 5명, 10명이었습니다.

37년 동안 ‘삼위의 역사하심’과 ‘시대 진리의 말씀’으로
현재 세계 20개국으로 복음이 번져 갔습니다.

20년 더 가면 세계 100여 개국으로 복음이 번져 나갈 것이고,
인원수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.

200년이 더 가면 이 복음이 지구 세상 전체에 들어가고,
허다한 무리가 지구촌을 덮게 됩니다.

현재보다 수백 배 더 불어납니다.

- ◆ 지금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

<잠언>이나 <각종 예술>로 전도하며 회원을 만들면,
당세에도 수천만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.

지금도 ‘시대 잠언’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으니,
어서 여러 방법으로 전도해야 됩니다.

- ◆ 전도도 하고, 가르치기도 하고, 관리도 하고,
자신들도 다스리고, 할 일도 하고, 못 한 것도 하면서
휴거 차원을 높이는 등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.

살아 있는 섭리역사입니다.

역사도 살아 있고, 우리 육도 혼도 영도 살아 있으니,
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성분과 질>이 중합니다.

선천적으로 좋게, 혹은 나쁘게 타고나기도 하고,
후천적으로 행위에 따라 좋게, 혹은 나쁘게 바뀌기도 합니다.

- ◆ <성분과 질>을 파악하고 ‘좋은 자’를 전도해야 됩니다.

만일 <성분과 질>이 나쁘다면,
교육하고 가르치고 참포도나무인 주와 접붙여 주어
성분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.

- ◆ 또한 <족속>이 중하고 무섭습니다.

고로 전도할 때는 ‘족속’을 파악하고 전도해야 됩니다.

<이단 족속>은 몰래 숨어 들어왔다가 배우는 척하면서,
오히려 ‘양들’을 속이고 빼내 갑니다.

고로 파악해야 됩니다.

- ◆ 이단은 <말씀>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어 가르칩니다.

정말 하나님의 역사이고,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맞다면
때를 맞춰 ‘성경’을 이루고 ‘세상 예언’을 이뤘어야 합니다.

그들이 왔을 때는 <말세 심판>도 없었고,
<평화의 역사>도 없었고, <세계적인 징조>도 없었습니다.

<역사>도 안 맞고, <때>도 모릅니다.

성경의 핵심 <재림과 휴거,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>도 모릅니다.

이를 알고 분별하고 행하기 바랍니다.

- ◆ 모두 알고 담대히 행하도록 지금까지 성령과 함께 말씀했습니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